사선대 관광 활성화 '몰두'

심민 임실군수, 사선대 일대 방문 관리운영 현황 보고·활성화 방안 논의

심민 임실군수가 최근 지속적인 현장행정을 실시하며 주요 현안 해결과 방문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몰두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22일부터 24일까지 사선대 활성화, 생활밀착형 SOC, 농업기반 정비, 생활기반확충에 중점을 두고 관촌면, 청웅면, 덕치면, 삼계면, 오수면, 지사면 일대 현장을 점검키로 했다.

먼저 22일 임실군 대표 관광지인 관촌면 사선대 일대를 방문해 지난해 마무리된 사선대 생태공원과 올해 착공이 예상되는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조성지 등을 꼼꼼히 둘러보고 관련 부서장을 포함한 직원들과 함께 사선대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사선대는 예로부터 물이 맑고 경치가 아름다워 하늘에서 신선과 선녀들이 내려와 놀았다는 전설이 깃든 곳이다.

군은 사선대를 자연친화적 생태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에 걸쳐 총 85억원을 투자했다.

초화원, 잔디마당, 생태하천, 생태탐방로 등을 조성해 지난해 국립생태원 주관 '2018 생태공감마당'을 개최하는 등 대한민국 대표 친환경 생태공원으로서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다.

특히 16만6000㎡의 넓은 자연공간에 누각, 조각공원, 어린이놀이터, 파고라 등 다양한 휴식 공간도 많이 어우러져 있어 가족이나 연인들의 힐링공간, 어린이들의 소풍장소로도 편히 찾을 수 있는 관광 명소로도 유명세를 타고 있다.

또한 사선대 내에 위치한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의 창의력과 체력증진을 위한 다양한 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숙박시설과 식당 등의 시설을 갖춰 단체 수련활동에 큰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이날 심 군수는 생활 밀착형 SOC사업인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진행사황을 점검했다.

북부권 생활체육공원사업은 총 4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 착공될 예정이며, 축구장, 다목적구장, 육상트랙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조성해 관촌면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사선대는 예로부터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해주고 있는 전북 대표 관광명소다"며 "그 명성에 걸맞게 다양한 초화류 식재와 편의시설 조성 등 활성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이날 논의된 주요내용들을 신속히 검토해 현장에 적용토록 하고, 23일 청웅면과 덕치면, 24일에는 오수면, 삼계면, 지사면 일대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미진한 사업 등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암송아지 이차보전사업 '탄력'

임실군, 임실축협과 협약… 4년간 1000두분 지원

임실군이 축산 농가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암송아지 이차보전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군은 22일 민선7기 대표 공약으로 추진 중인 입식우 이차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임실축산업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임실군청 군수실에서 양 기관장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협약서에 날인했다.

협약에 따라 임실 우시장에 출하된 형질이 우수한 암송아지를 입식하기를 희망하는 농가에게 저리로 지원하여 농가의 금융비용을 절감시킬 계획이다.

군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한우 암송아지 1000두분을 지원하기 위하여 2억 8000만원의 군비를 확보하고,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위해 이자 중 농가부담은 1%로 확정했다.

농가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며, 2년 일시상환하는 조건이다.

대상은 관내 거주 및 한우 사육시설을 갖춘 농가다. 임실 우시장에 출하된 형질이 우수한 암송아지를 입식하고자 희망하는 농가에게 농협 상호금융자금을 저리로 지원하여 농가의 금융비용을 크게 줄여줄 계획이다.

입식우 이차보전사업은 한우 번식우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송아지 재생산을 확대시켜 축산농가의 소득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전업농 육성을 통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심 민 군수는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한우 암송아지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하여 많은 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송아지를 키우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며 "축산농가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메아리

임실군 이도1지구 경계결정위 성가·이도 20만6146.2㎡ 결정

임실군은 22일 군청 회의실에서 임실군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실읍 성가리 및 이도리 933필지 20만6,146.2㎡의 경계설정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토지조사사업으로 작성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토지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부터 이도1지구에 대한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한 후 토지소유자의 협의를 거쳐 설정된 경계를 결정했다.

군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를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경계결정에 불복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을지태극연습' 준비 보고회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욱)은 22일 '2019 을지태극연습' 추진을 점검하기 위한 준비보고회를 가졌다.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실시되는 을지태극연습은 한국군 단독연습인 태극연습과 기존의 을지연습을 연계해 재난상황에 대비한 국가위기대응연습과 전시대비연습을 함께 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을지태극연습의 중점사항과 전반에 걸친 사전 예행연습 및 관련 내용을 교육해 내실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요 일정 및 각 부서별 준비사항, 사태별 주요 조치계획,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신호등 주변 쉼터 의자 설치

남원시가 보행이 불편한 시민들을 위해 횡단보도 주변에 '장수의자'를 시범 설치해 환영받고 있다.

장수의자란 어르신이나 보행이 불편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횡단보도 주변에 설치한 접이식 의자다.

이번에 설치된 장수의자는 병원, 전통시장 등 노인 유동인구가 많은 6곳으로, 가로수와 그늘막이 있는 신호등 주에 설치해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더운 날씨에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편의 공간의 역할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발효소스 토굴

순창 발효소스토굴 '랜드마크' 우뚝

지난해 6만2424명으로 2017년보다 7000여명 증가

관광객 유입 위한 'VR체험 콘텐츠' 등이 인기 요인

2016년 임시개장 이후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순창 발효소스토굴이 앞으로도 장밋빛 미래를 예고하고 있어 군 관광사업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발효소스토굴은 순창읍 백산리 일대에 위치한 인공 동굴 형태로 134m의 길이에 최대폭 46m인 대형 저장고다.

관광객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5만5540명, 2018년에는 6만2424명으로 약 7000여명의 관광객이 증가했다.

인기를 누리는 가장 큰 이유는 다양한 관광객 유입을 위해 구축한 VR체험 콘텐츠를 들 수 있다. 군은 최근 사업비 5억 2천여만원을 들여 지난해 6월 설치한 VR체험 콘텐츠 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

기존 VR 콘텐츠는 HMD(Head Mounted Display) 방식으로 VR기기를 쓰고 콘텐츠내 영상을 보는 방식에서 탈피해 직접 게임속 1인 플레이어가 되어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더욱이 호남지역 최초로 트레이드밀 옴니(Omni) 장비를 설치해 현실감을 더했다.

또 VR 콘텐츠 이용료가 시중에서 5천원에서 1만원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입장료만 내면 이용가능해 관광객 유입 확산에 큰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도심 '젊고 활력있게'

시, 도시재생 뉴딜 추진 공설시장 주변 환경 개선키로

남원시가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해 젊고 활기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공설시장 주변 환경개선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 2020년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대응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최대 2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옛 남원역 앞 유해환경 개선사업을 펼쳐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선 올해 10억여원을 들여 보상과 철거 작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확보해 지속적인 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원도심(동충·죽항·금동 일부지역) 도시재생사업도 속도를 높여, 내년까지 5년 동안 총 사업비 100억원을 들여 광한루원과 구 남원역(만인공원)을 잇는 춘몽·향단로(L=800m)에 보행자들이 걷고 싶은 도로를 조성하고, 거리중간에 보행자들이 쉴 수 있는 예루원(園)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총 사업비 142억원을 들여 시외버스터널 주변 활성화 사업을 전개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어울림센터를 조성, 지역주민과 시민을 위한 생활SOC시설과 상생협력 상가 등을 유치하기로 했다

이 지역 용성로는 병(의)원이 밀집해 있으면서도 보행로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아 교통약자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정비를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골목길 정비와 주차공간 확보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의 생활편익을 도모할 계획이다.

남정식 도시과장은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등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순창군, 임신·출산·육아교실

순창군이 저출산 극복과 건강한 육아환경조성을 위하여 임신·출산·육아 건강 교실을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운영한다.

임신·출산·육아 건강교실은 임신부와 영유아 보호자 20여명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3시까지 보건의료원 대회의실에서 운영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수공예 기저귀 가방 만들기, 공기정화 식물액자 만들기, 애착인형 만들기, 산모와 유아를 위한 베이비 로션, 오일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정영곤 순창보건의료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과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해 순창군이 전국에서 으뜸가는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창군보건의료원은 유모차 살균소독기를 보건의료원 내 1층 현관에 설치해 영유아 부모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출산가정 산모건강관리사 이용료 지원, 2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제공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순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